



## 27개국 34개 도시서 성화 봉송

올림픽 성화는 35일 동안 국제 올림픽위원회(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과 2008년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을 비롯해 역대 올림픽 개최지 등 27개국 34개 도시 6개 대륙을 순회하면서 7만 8천 km의 봉송에 나설 예정이다. 만 천여 명 봉송자의 손을 거쳐 세계 일주를 마친 성화는 기원전 3000년경 미케네 문명을 활짝 꽃피웠

오는 8월 13일 개최되는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을 밝혀줄 성화가 지금 전 세계를 일주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성화는 1896년 제1회 근대올림픽 개최일자 그리스 독립기념일인 3월 25일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올림피아의 헤라신전에서 재화되었다. 전통적인 의례에 따라 거울로 햇빛을 모아 채화된 성화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거쳐 3월 31일 근대 올림픽 주경기장이었던 아테네의 파나티나이크 스타디움에 도착한 뒤 두 달여 동안 불을 밝혔다. 올림픽 열기를 끌어올린 성화는 6월 4일 최초 출발지인 호주 시드니에서 봉송을 시작했다.

던 크레타 섬에 도착해 그리스 내 봉송에 나서 올림픽 개막일인 8월 1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아테네 올림픽 성화는 올림픽 불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역대 올림픽 개최지를 순회하며 봉송길에 나서고 있다.

### 스포츠 스타 등 만 천여 명 봉송 참여

이번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 시도하는 성화 세계봉송에는 특급 스타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아테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6월 4

# 평화와 화합의 상징 성화(聖火) 봉송



이광호 KBS 해설위원

일부터 시작된 성화 세계봉송에는 스포츠계의 전설적인 영웅과 은막의 스타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화 세계봉송의 첫 경유지인 호주 시드니에서는 시드니 올림픽 여자 육상 400m 금메달리스트인 캐시 프리먼이 첫 주자로 나섰다. 또 남미에서는 브라질의 축구 영웅인 펠레와 호나우두, 지코 등이 봉송 주자로 뛰고 미국에서는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 칼 루이스 등 스포츠 스타와 그리스계 후손인 여배우 제니퍼 애니스턴이 참가하고 있다.

## 서울에선 인간 승리 주인공 참가 큰 감동

아테네 올림픽 성화가 국내에는 6월 7일 서울에 도착해 다채로운 봉송행사를 가졌다. 지난 4일 아테네를 출발해 시드니와 도쿄를 거쳐 성화봉송 전용기인 제우스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성화는 올림픽 공원에서 잠실 주경기장, 테헤란로, 국회의사당, 신촌, 인사동, 을지로 구간 48km를 달린 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안치됐다가 다음날인 6월 8일 중국 베이징으로 떠났다. 국내에서도 성화봉송에 유명인사와 스포츠 스타 등 120명의 주자가 참여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인 황영조와 서울올림픽 양궁 2관왕 김수녕, 심권호 등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홍수환, 차범근, 선동열, 서장훈 등 스포츠 스타, 이효리, 권상우 등 연예계 스타들이 대거 봉송주자로 나섰다. 또 소년 산악인인 고교생 김영식 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군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알프스 최고봉인 스위스 마티호른(4478m)에 올라 세계 최연소 등반기록으로 기네스 북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아름다운 철도원 김행균 씨와 시각장애인 김예진 씨도 각각 의족과 안내견을 이용해 행사에 참가해 올림픽 정신을 되살렸다. 이들은 장애의 역경을 이겨내고 남다른 희생정신과 용기가 돋보인

인간승리의 주인공들이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성화 봉송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최초

올림픽 경기장을 밝히는 성화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 기간 중 제우스 신전에 켜진 성화와 횃불경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성화가 스타디움에 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은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때였고 요즘과 같은 성화 릴레이를 시작한 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부터였다. 당시 히틀러의 명령으로 발칸반도 여러나라의 청년을 동원해 베를린까지 릴레이 시킨 것이 오늘날 성화봉송의 효시이다. 그 이후 1950년 올림픽 현장에 성화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성화의 재화와 봉송은 올림픽경기의 주요 행사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 남북 중단하는 봉송 길 열려야

지난 2002년 9월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남과 북의 불을 합한 성화봉송으로 7천만 민족의 단결을 과시하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북의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통일의 불)와 남의 한라산에서 채화된 성화(평화의 불)가 오작교에서 만나 하나의 불꽃으로 합쳐졌고 전국을 돌며 4,294km의 대장정을 거쳐 아시안 게임이 치러지는 16일 동안 타올랐다.

올림픽은 평화와 화해, 우의의 상징이다. 올림픽을 밝히는 성화가 전세계 지구촌 곳곳을 돌며 평화를 기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해마다 한라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백두산까지 봉송되고 백두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한라산까지 봉송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올림픽 성화는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에서도 봉송돼 스포츠를 통한 평화구축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명언이 새삼 떠오른다. [7]